

[ 사회 ]

# 숨진 5·18 부상자 10명중 1명 '자살'

### 후유증에 자포자기... 간질환 사망도 9%나

### 재단·생명인권운동본부 29일 토론회 개최

5·18 민중항쟁으로 몸을 다친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자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5·18 기념재단과 생명인권운동본부에 따르면 5·18 부상자 가운데 숨진 376명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39명(10.4%)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4명(9%), 교통사고 26명(7%), 병사는 6명(2%)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자살과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간질환과 자기과격적인 생활로 인한 사망이 19.4%에 이르렀다.

하지만 5·18 피해로 정신질환을 앓는 희생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뤄진 반면 숨진 정신질환자 56명(전체 133명) 중 13명(23%)이 자살을 한 것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명인권운동본부가 지난 2004년 자살한 5·18 부상자 A(당시 43세)씨의 심리학적 부검 및 의학적 검증을 통해 후유증 여부를 살펴본 결과, 5·18 민중항쟁 경험과 계엄군의 고문을 거친 뒤 정신적인 고통을 보다 갖은 폭음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 당시 회사원이던 A씨는 5·18 이후 갖은 폭음

으로 간 질환을 앓게 됐고 가정체와 고통 속에서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고 의료진은 해석했다.

올해 8월 현재 5·18 민중항쟁 관련 피해자는 사망 154명·행방불명 70명·부상 3천28명·기타 1천628명 등 모두 5천60명이다.

생명인권운동본부 관계자는 "심리학적 부검에서 A씨가 민중항쟁 경험과 인권탄압 등의 복잡한 고통을 받은 것이 뚜렷하다"며 "이 같은 고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5·18 기념재단과 생명인권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오는 29일 5·18 기념문화관에서 '민중화운동 피해자 및 가족의 자살피해 현황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

/인한주기자 ahj@kwangju.co.kr

## 수익용 재산서 얻은 이익 80% 학교투입 규정 위반

### 광주·전남 사립대들 '판주머니'로

광주·전남 상당수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이 대학의 수익 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사립대학은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얻어진 수익에서 유지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의 최소 80%를 대학 운영경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얻은 대학의 수익을 일정 부분 학교 운영에 사용하게끔 규정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용(민주노동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2006년 사립대·사립전문대 수익액 중 대학운영 경비 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 189곳 가운데 38.6%인 73곳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또 사립전문대 104곳 중 66.3%인 69곳도 마찬가지였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 중 대학운영경비 부담액 80% 이하 대학 (단위:천원)

학교명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총액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 중 대학 운영경비 부담액	비율 (%)
광주대	2,204,742	1,743,000	79.1
조선대	2,367,074	1,577,370	66.6
목포가톨릭대	130,165	70,261	54.0
광주여대	277,884	-	0.0
광양보건대	27,008	21,000	77.8
서경정보대	65,070	36,000	55.3
성경대	424,372	115,000	27.1
동원대	94,066	9,600	10.2
광주보건대	15,915	1,000	6.3
기독교대학	-	-	0.0
나주대	-	-	0.0
순천제일대	-	-	0.0
순천향대	3,600	-	0.0

전 707만원 중 66.6%인 15억 7천 737만 원, 광주대는 22억 474만 원 중 79.1%인 17억 4천 300만 원을 운영 경비로 부담해 규정(80%)에 못 미쳤다.

사립전문대 중에서는 순천향대학의 대학운영 경비부담 비율이 0%였고, ▲광주보건대학 6.3% ▲동강대학 10.2% ▲성화대학 27.1% ▲서경정보대학 55.3% ▲광양보건대학 77.8%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출근길 안개 조심

비가 온 후 서쪽에서부터 점차 개었다.

10월 26일 (음 9월 16일) <전국날씨>

지역	날씨	기온
주요	비	14~23
포항	비	15~21
부산	비	16~20
대구	비	14~22
대전	비	12~23
충청	비	14~22
전주	비	13~23
광주	비	14~22
전남	비	12~23
제주	비	15~23
제주	비	14~22
제주	비	13~22
제주	비	12~22
제주	비	16~18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1:32 썰물 < 07:00  
목포 밀물 < 14:04 썰물 < 19:28  
여수 밀물 < 08:55 썰물 < 02:30  
여수 밀물 < 21:05 썰물 < 14:57

▲해돋이 06:47 ▲해질 17:45 ▲달 طل 06:35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11/1(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0/22	9/18	8/17	7/17	7/17	6/17



## 음악에 맞춰 줄넘기 신나게

25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광주시 교육감배 줄넘기 대회에서 화정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멋진 연기를 펼쳐보이고 있다.

음악에 맞춰 2단뛰기·4인 릴레이 구보뛰기 등 6개 부문에서 줄넘기 대결을 하는 이번 대회는 26일까지 계속되며, 광주광역시 20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2천283명이 참가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청소년수련관 대형화재 위험

### 광산·신안 임차 국감 지적

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형 청소년수련관의 전기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해 대형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사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은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 "올해 9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전국 대형 청소년수련관 58곳 중 광산구 청소년수련관과 신안군 청소년수련관 등 12곳의 전기시설이 특별점검에서 2년 연속 불량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용 규모 1천명인 광산구 청소년수련관(부지 5천299㎡, 지하 1층·지

상 3층)은 올해 5월과 지난해 9월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1·2층 복도 전등회로 3곳이 누전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지금껏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속박정원 512명(야영정원 1천명)인 신안군 청소년수련관(부지 6천 189㎡, 지하 1층·지상 4층)도 올해 7월16일과 지난해 8월24일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식당과 숙소·복도 등 20여 곳에서 누전과 누전차단기 동작 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전남 모범수형자

### '교정의 날' 73명 가석방

광주지방교정청은 제62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26일 오전

10시 광주와 전남에서 모범 수형자 73명을 가석방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광주교도소 19명 ▲목포교도소 17명 ▲순천교도소 27명 ▲장흥교도소 10명 등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김태춘씨 "권력층 비리 폭로하겠다"

### "자서전·영화통해...권상우씨인 미안"

폭력조직 전 서방과 두목 김태춘(58·사진)씨가 "자서전과 영화를 통해 검사·정치인 등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협박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는 최근 시사주간 '사건의 내막'과 인터뷰에서 "그 동안 살아온 과정과 정·계권 인사들의 비리를 담은 자서전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서전은 어린시절을 비롯해 나와 관련된 검사 등 범죄 인물·정치인·회장·유명 국회의원·대통령과의 관계 등으로 나뉠 것"이라며 "자서전과 영화계



자이 끝나면 이민을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조직폭력배 보스는 아무리 강세

했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다. 피해자(권상우)가 협박당하지 않았다 말했는데 실정을 받았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권상우씨에 대해서도 "미안할 뿐이며, 항소심에서 권상우가 다시 한 번 정확히(협박당하지 않았음을) 언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 오늘 촉촉한 가을비 10~40mm

### 곳곳 안개 '주의'

26일 광주·전남지역에 촉촉한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광주·전남지역은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한 두 차례 비가 온 후 서쪽지방부터 점차 개겠다"고 예보했다. 강수량은 10~40mm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전망해

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면서 대기중 습도가 높아져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다"며 "특히 해상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나, 항해하는 선박은 안전운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계속 될 전망이다.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

## '간 큰' 대법관 운전사

### 사건정탁 4천여만원 받아

서울 서부지검은 25일 사건을 청탁 해주겠다며 재개발조합 부조합장으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대법관의 운전사 심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용산구 집합촌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시공사 선정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던 재개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심모씨에게 '조합장이 구속되도록 힘을 써주겠다'고 약속하고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조합장과 대치하고 있던 조합원들과 조합과 계약하지 못한 분양

대행업체들로부터 '조합장을 구속시키고 내가 새 조합장이 돼 함께 이익을 누리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각각 3천만원과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소송됐고 심씨에게 이 자금의 일부를 건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심씨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심씨에게 사건을 청탁하며 금품을 줬다고 증언하자 뒤늦게 심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검이 심씨로부터 실제로 사건을 청탁 받았는지 여부와 조사 과정에서 심씨로부터 법정 증언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묵살하지는 않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 12월 15일 시험확정!!

돈되는 자격증!! 초창기 시절을 노력하라!

## '부동산대출증개사'가 뜬다!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에 의해 시험된 필화공인자격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된 학생 - 주부 - 직장인들에게 인기 최고!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당신
- 결혼생활이 어려워져서 소득이 없는 당신
- 노년층이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드는 당신
- 고령자 취업이 어려운 당신
- 자녀를 위한 교육비 마련이 어려운 당신
- 자기 자신을 위한 재테크가 필요한 당신
- 실업률 상승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당신
- 대출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당신
-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당신
- 부동산을 사려는 당신
- 부동산을 팔려는 당신
-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는 당신
- 부동산 투자자를 찾으려는 당신
- 부동산 업계에 진출하려는 당신

080-372-2900  
010-3373-7100

## 저렴한유가 인공비타민 저음 냉방고민 끝~

### 초절전형 냉방기 필수 하자!

### 무크수입 돈이!

1. 1인용 냉방기 1000대  
2. 2인용 냉방기 500대  
3. 판매, 홍보용 자료

두자제 12월 15일 시험확정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

시험일: 12월 15일, 주일  
대상: 학생, 주부, 직장인  
교과: 영어, 국어, 수학  
-특히 전직생-

080-372-2900  
010-3373-7100